

2002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발전 연구  
The Essence and Development of the Holy Church  
according to John Calvin's Institutes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고 형 배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발전 연구  
The Essence and Development of the Holy Church  
according to John Calvin's Institutes

지도교수 : 김 영 규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2日

高亨培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을 判定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安 養大 學 校 神 學 大 學 院

2002 년 12 월

## 목 차

I. 서론	-----	2
A.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	2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교회의 본질	-----	4
A. 교회에 대한 어원적 이해	-----	4
B.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	5
1.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들	-----	6
a.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비가시적교회	-----	6
b.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교회	-----	7
c.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8
2. 교회의 성격	-----	9
a. 가시적교회와 비가시적교회	-----	9
b. 싸우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	-----	12
c.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	-----	13
3. 교회의 속성	-----	14
a. 교회의 통일성	-----	14
b. 교회의 거룩성	-----	15
c. 교회의 보편성	-----	16
4.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과 표지	-----	17
III. 교회의 발전	-----	20
A.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	20
B. 신구약교회의 통일성	-----	25
C. 여러 시대의 교회	-----	31
IV. 결론	-----	38
V. 참고문헌	-----	42

## I. 서론

### A.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마지막 정통개혁주의자인 H.Heidegger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의 상태에서부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의 상태로 부르신 택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로서의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회집”이라고 정의되었다.<sup>1)</sup>

칼빈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시키며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기관으로서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와 권징이 집행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한 성도가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며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부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교회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기능적인 측면들만을 강조함으로써 교회론에 있어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교회를 존재로 보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이해보다는 기능적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칼빈의 사상과 그 핵심들을 바르게 정립하며,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본질과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칼빈의 신학은 “교회를 유익 되게 하는 신학”이었다.<sup>2)</sup> 그것을 연구하는

---

1) H.Heidegger, Corpus Theologae Christianae, Tiguri 1732, p507 재인용.

김영규, 「조직신학편람Ⅳ」 “교회론과 종말론”,(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2) 김성봉,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교회와 문화」 제4호, 한국성경신학회 엮음,(하

것은 우리가 칼빈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론을 그의 기독교강요 4권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교회론에서 교회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교회의 참된 표지를 다루면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베버는 개혁자들 중 칼빈은 교회론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칼빈 연구에 있어서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3)</sup> 칼빈은 교회를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로 보았다. 그의 교회론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신학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며 참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성례는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의 핵심은 말씀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발전에 대한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살펴보고, 본론 부분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교회론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 속에 나타난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속성, 그리고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과 표지를 살펴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밝히고, 교회와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며 신구약의 통일성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알아보고 아담 이래로 있었던 여러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발전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정립하고자 한다.

---

나,2000), p81

3)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풍만출판사, 1985), p44.

## II. 교회의 본질

### A. 교회에 대한 어원적인 이해

구약에서 ‘교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부르다’를 의미하는 **קָרָא**에서 비롯된 **קְרִיאָה**<sup>4)</sup>는 총회, 집회, 회중, 언약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다’, ‘만나다’를 의미하는 **פָּגַע**는 제사 공동체에서 비롯된 **פְּגִיעָה**<sup>5)</sup>를 사용한다. 이것이 70인경(LXX)에서는 히브리어 **קָרָא**와 **פָּגַע**은 **συναγωγή**로 번역되었으며, 후에 **קָרָא**는 **συναγωγή**로, **פָּגַע**은 **ἐκκλησία**로 각각 번역되었으며, 이 단어들은 신구약을 통해서 ‘교회’라는 용어로 보편화되었다.

교회(**פָּגַע**, **קָרָא**, **ἐκκλησία**)란 말은 ‘함께 부르다(*evocare, convocare*)’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로부터(**ἀπό τοῦ ἐκκαλεῖν**) 추론된 것으로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정한시간에 모여지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서로 결속되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 받아 함께 모아진 백성이었으며 신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sup>6)</sup>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는 ‘교회’라는 용어들(*kerk, church, kirk, chiesa*)은 분명히 그리스도교회의 본질을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모아지는 장소, 교회의 건물을 의미한다. 용어들은 서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었어도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예배의 모임을 뜻한다.<sup>7)</sup>

4) 창 49:6, 출 12:6; 16:3, 레 4:13, 민 14:5; 20:6, 신 5:22; 9:10

5) 출 16:22, 신 31:10, 민 8:9; 10:2; 16:3; 20:4

6) 김영규, 「조직신학편람Ⅳ」 “교회론과 종말론”, (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7

7) Alan Richardson, E.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p. 108.

## B.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언약에 기초한 택자들의 모임이다.<sup>8)</sup> 그 택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리고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외적 요인이 그를 변질시킬 수 없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sup>9)</sup>

그리고 그 택자들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같은 구원의 서정에 따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소명, 중생, 신앙, 칭의, 성화와 영화의 완성에 있어서 내적이고 영적인 선물들을 받는 것이다. 선택된 자들은 구원이 확실하며 실패할 수 없다고 함으로 구원의 보증을 영원한 선택에 두었던 것이다. “비록 그들이 방황하고 넘어질 수는 있을 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는 없다”<sup>10)</sup>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르트회의 에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고백에 그 작정을 이루는 수단들, 즉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헤르만 바빙크(H. Bavinck)는 교회는 공간적 의미에서 땅위에서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으며(히 12:23) 과거와 현재에서만 아니라 미래에도(요 10:16)있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였다.<sup>11)</sup>

칼빈은 교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 택함을 받은 전체의 수인 거룩한 보편의 교회를 믿는다고 하였다.<sup>12)</sup> 참으로 교회는 선택의 현실화요 이것

8 김영규“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13.

9) Ibid., p.14.

10) Institutio 1536, p.140.

11) H. Bavinck, Gereformeerde Dogamatiek, IV, pp.264-5. 재인용, 김영규, 「조직신학편람 IV」 “교회론과 종말론”,(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9.

12) Institutio 1536, 140. 재인용 김영규, 「조직신학편람IV」 “교회론과 종말론”,(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10.



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과 칭의, 영화를 위한 선택이요(롬 8:28)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 받기 위한 선택이며(롬 8:29) 거룩한 구원을 위한 선택(엡 1:4f)이라고 하였다.<sup>13)</sup>

교회의 본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제도로서의 교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는 타락 후 그 존재의 첫 순간부터 어떤 유기체를 갖고 있었다. 처음 족장들의 가족에서, 그 후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이후에는 땅 위에 그가 자신의 교회 세우신 특별하고 항존적인 다양한 직책들이 있었다(엡 4:11). 그러나 각 직책은 한 권세, 한 권리, 한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 1.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들

### a. 구원받은 자의 총수로서의 비가시적 교회

루터의 교회론에서는 칭의론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칼빈의 신학사상에는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sup>15)</sup>라고 말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라고 하였다.<sup>16)</sup>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있다는 것이다.<sup>17)</sup>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성령의 인도 하에 하나가 되어있다.

---

13) H. Bavinck, op.cit., IV, pp.282-4. 재인용김영규, 「조직신학편람Ⅳ」 “교회론과 종말론”,(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1.1

14)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p.175.

15) Inst., IV.1.2.

16) Inst., IV.1.7.

17) Inst., IV.1.2.

칼빈의 교회는 가건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예정된 회중을 의미한다. 즉 교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불가견적인 교회가 있다. 이러한 불가견적인 교회론은 그 이 예정론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진다.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이해는 루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써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8) 이 불가견적인 교회의 교리는 원래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와의 논쟁에서 발전시킨 교회론 이었는데 칼빈에게 이르러서야 실제적인 교리가 되었다. 따라서 칼빈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영혼과 같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에서 유리되어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b.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한 신자의 어머니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의 제목을 “모든 경건한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라고 하였으며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는 가건적인 교회를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양육을 받으며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sup>19)</sup>라고 1559년 판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모습과 기능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sup>20)</sup> 따라서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sup>21)</sup>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

---

18) 이장식, 「현대교의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p.229.

19) Inst., IV.1.1.

20) Inst., IV.1.4.

21) Ibid.

의해야 할 것은 칼빈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교회가 그 자체로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적인 이해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외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말씀과 성례전을 주셨는데, 만일 사람들이 이 외적 수단에 참여하며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할 때에는 그들에게 구원이 전달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불가견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견적인 교회에 대하여 언급 하고있는 것이다. 칼빈은 로마카톨릭교회가 제도적인 교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과 성령이 역사 하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처럼 칼빈은 불가견적 교회를 말하면서도 이 지상 위에 있는 가시적 교회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c.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칼빈의 교회이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4; 5:23-30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여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한 것으로써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이며 생명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칼빈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의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불가분의 연합성과 교회의 단일성에 대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sup>22)</sup>

칼빈을 연구한 신학자 니젤(Niesel)은 그의 저서인 「칼빈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를 논했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상호 협조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그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이시며, 그 통치자와 머

22)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Grand Rapids: Eerdmans, 1983), p.64.

23) Inst., IV.1.2.

리이다. 개인이나 단체로서 개체가 교회를 통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4)</sup>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지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친교를 가지게 된다.<sup>25)</sup>

신자들의 결합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결합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가견적교회의 통일성이라는 측면만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으로써 그는 교회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신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신다.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그 안에 머무르고 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sup>26)</sup>

이처럼 칼빈은 교회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불가견적인 측면, 즉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sup>27)</sup>

## 2. 교회의 성격

### a. 가시적교회와 비가시적교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성격은 교회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게 추론되는 성격이다. 교회를 정의 할 때 이 개념들을 사용한 자는 쾰빙글리이다. 사도신경 해석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요약은 다른 책에서 그런 정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언약 사상을 세웠으며, 보편의 교회를 가시적 교

---

24) W. Niesel, *The Gospel and Churchs*. tr. by David Lewi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p.188.

25) *Ibid.*, p.187.

26) *Inst.* IV.1.3.

27) *Ibid.*

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가시적 교회란 도대체 누가 믿을지 사람의 눈에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이 바로 택자들 즉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아님을 명시하였다.<sup>28)</sup>

칼빈의 경우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의 서정에 의해서 모아지는 신구약의 모든 택자들의 수 또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populus electorum Dei*)으로 교회를 정의하는데 강한 강조가 있었다.<sup>29)</sup>

바빙크에 따르면 비가시적 교회라고 칭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지금 지각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영광의 교회 역시 우리 앞에 지금 지각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어거스틴도 참된 몸(*corpus verum*)으로서의 교회와 혼합된 몸(*corpus permixtum*)으로서의 교회를 구별하였다.<sup>31)</sup>

칼빈은 교회의 유형적인 면과 무형적인 면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교회의 무형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나, 부처(Bucer)와 접촉하면서부터 교회의 유형적인 면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1539년 판에서 유형교회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칼빈도 루터처럼 가시적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적었으나, 후에 스트라스부르그와 주네브의 목회 경험을 통하여 가시적 교회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칼빈은 그의 교회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구분하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

28) H. Zwingli, *Christianae Fidei...expositio*, Tiguri 1536, p.19. 재인용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Ⅳ」 “교회론과 종말론”,(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20.

29) Ibid. p21.

30) Ibid.

31) Ibid.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서 살아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sup>32)</sup>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피택자들의 단체, 즉 신자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동시에 칼빈은 비가시적 교회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 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이 교회와 계속적으로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칼빈에 의하면 이 가시적인 교회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증명한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을 보존한다.<sup>34)</sup> 이 가시적인 교회에는 선택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도 섞여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야심과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과 중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잠시나마 허용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재판기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강력한 규율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35)</sup>

이와 같은 칼빈의 교회 개념은 “두 개의 교회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키

---

32) Inst. IV.1.7.

33) Ibid.

34) Ibid.

35) Ibid.

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시적 교회를 경험적인 교회에 직면시키려는 것”이라고 니젤은 말하고 있다.<sup>36)</sup>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두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만이 교회의 궁극적이며 본래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가시적 교회의 지체와 더불어 교제를 가져야 하며, 이 교제를 존중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sup>37)</sup> 그리고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가 첨가된 것도 이 가시적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더불어 형제다운 사귀음을 가져야 하고 이 가시적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마치 하나의 양 무리처럼 행동해야 한다”<sup>38)</sup>라고 하였으며 유일한 구원의 기관인 어머니로서의 교회도 결국 가시적인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39)</sup>

칼빈이 비가시적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정론에 기초하여 하나님만이 교회의 궁극적이며 본래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시는 것’(딤후 2:19)이다. 칼빈은 선택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세웠으며, 이것은 루터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다.<sup>40)</sup>

## b. 싸우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

교회는 싸우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교

36) W. Niesel, 「칼빈의신학」, 이종성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pp.190-191.

37)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서울:풍만사, 1985), pp.51-52.

38) Inst. IV.1.3.

39) Inst. IV.1.2. “우리가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의 교회란 단순히 가시적인 교회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사람들을 말한다.”

40) 오토 베버, 「칼빈의교회관」, 김영재역(서울:풍만, 1985), p.46.

회의 성격은 이미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만 스콜라신학에서 사용되고 정리된 개념들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싸우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를 승리의 교회에서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추하였다. 루터의 경우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항상 싸우는 교회요 승리의 교회임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리고 A.Kuyper는 4 가지의 교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 후에 있게 될 영광의 교회(Ecclesia glorian), 지금 이미 하늘에서 승리하고 있는 승리의 교회(Ecclesia triumphans), 땅에서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Ecclesia militans), 그리고 사자들 앞에 감추어져 있는 은폐의 교회(Ecclesia latens)이다.<sup>41)</sup>

이것은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성격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상에서 가시적 교회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싸우는 방식과 싸우면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나 표지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벧전 5:8).

싸우는 교회로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기가 없다. 이러한 무장방식 내용은 바울을 통해서 (엡 6:10f) 계시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미 창조시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자체에 이미 이런 성격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신과 아담의 모습을 알리시며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특별한 은혜의 내용(창 3:15)을 알리시고 돌보시며 인간의 실패의 순간마다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창 4:6-7)을 알리기 시작하신 것이다.

### c. 유기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직 성경에 따라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져

41) A.Kuyper, Dictaten Dogmatiek, IV, p.53. 재인용, 김영규, 「조직신학편람Ⅳ」 “교회론과 종말론”,(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22



야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 원리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이다. 그는 교회와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신다(엡 1:10, 22, 23; 2:20-22; 4:15; 5:30).

### 3. 교회의 속성

#### a.. 교회의 통일성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 근원이 영원 전부터 성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이란 교회의 머리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이 통일성은 하나님의 독특하고 고유한 역사로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통일성은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제적이되 전적으로 비가시적인 것은 아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통일성으로 신자들이 이 몸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에 의해서 활력을 부여받는다.

성경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에베소서 4:4-16). 바울은 교회의 이상적인 통일성을 위하여 교회의 직원의 임명과 그 봉사를 말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성직 계급의 조직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부정하지 않고 유지했다. 그들은 통일성을 교회의 조직에서 찾지 않았으며,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에서 찾았다. 개혁자들의 사상은 벨기엘 신앙고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김을 받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 지고 인침을 받아 그 안에서 신자들이 구원 받을 것을 기대 한다.”

교회의 통일성은 무엇보다도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모습을 나타내야만 한다(엡 4:13). 참된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개개의 지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 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라는 것을 드러낼 때 가능하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개교회주의라는 교회됨을 거역하는 현상임을 의식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이들이 아니라, 서로 위하고 격려하여 같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 b.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5-27)는 증거를 받고 있다.<sup>42)</sup> 또한 주께서 주름잡힌 것을 표며 티를 씻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다. 따라서 교회는 매일 전진하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다.<sup>43)</sup>

---

42) Inst. IV.1.17.

43) Ibid.

하나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의로 인하여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러진 거룩한 교회이다. 교회는 그 교회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거룩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관성에 기초하여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들의 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거룩해 지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요 17:17)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데 있어서 민감해야 한다. 그 구성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성화를 이루어 그 공동체가 참된 거룩성을 잘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그 진리에 대해 변증과 선포를 하는 교회이며, 또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숙하고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 객관적인 거룩성을 교회의 진리에 대한 순종과 지체들의 성숙과 성화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지체들의 거룩성과 관계하고 거룩한 지체들의 연합체란 성격에 있다.

교회의 거룩성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의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은 주관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거룩하다. 즉 교회는 내적인 원리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하며, 완전한 거룩을 지향한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은 속 사람의 거룩함이며 이 거룩함은 외적인 삶에서도 표현된다.

이 거룩함은 무형교회의 속성이며 동시에 유형교회의 속성도 된다. 유형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러졌다는 것과 그리스도안에서 거룩한 교체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이다.

### c.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보편성(catholicity)이라는 또 하나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 보편성은 신약의 교회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내는 속성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도 보편성이 나타나있다(출 19:5; 시 103:17-19). 그러나 교회의 보편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시고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신 일부터 시작된 것이다(엡 2:14-15).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44)</sup>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 1:22-23)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 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 4:16).<sup>45)</sup>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영생을 받게 하시며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엡 5:30).<sup>46)</sup>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강조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속하도록 하는 일은 교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교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보편성이란 말은 없지만 성경의 모든 증거들이 기독교는 모든 민족들과 세대들, 모든 신분들과 지위, 모든 장소와 때를 위해서 결정되어 있고 합당한 보편종교임을 증명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무형교회가 참된 보편교회이다. 그 이유는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각 시대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예외 없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

---

44) Inst. IV.1.2.

45) Ibid.

46) Ibid.

며, 이 교회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교회의 신조들은 보편적인 유형교회를 믿고 있음을 말하고 있기에 보편성을 유형교회에도 적용한다.

#### 4.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과 표지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과 표지는 말씀과 성례를 들 수 있다. 칼빈은 루터(M. Luther)와 멜랑히톤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객관적 표지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sup>47)</sup> 이 두 표지를 통하여 칼빈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어 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그대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sup>48)</sup>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례가 시행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살아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가 계신 곳에는 그의 백성도 거기 있게 된다. 말씀과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주로 높이 들리움을 받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 그 적용되고 취하게 되는 수단들이 있는데 이것이 은혜의 수단들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은혜의 수단들과 교회의 표지들이 일치되어 왔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이 교회의 표지를 강조하였다. 즉 택한 자들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확실한 표지들을 알려 준다는 것이다. 그 표지들은 신앙고백, 생활의 모범, 성례의 참여, 교회의 권징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경청되는 곳,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는 하

---

47) Augusburg Confession, art.vii. & viii. 교회는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되었다.

48) Inst.,IV.1,9; 엡 2:20 참조.

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외에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4장<sup>49)</sup>과 대요리 문답 제 154문과 소요리 문답 제 88문에서는 첨가시키고 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은 신비주의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구별된 표지의 내용이며, 율법주의와 반 율법주의로부터 구별된 표지의 내용이다.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언약의 통일성의 입장에서 잘 정리되어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혁주의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조한다.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위대한 방편이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의 기능은 말씀의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성례는 말씀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성례는 그 자체가 그 고유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례는 말씀의 가시적인 선포이다. 성례의 바른 집행이 참된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은 성례가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회의들에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의 약속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 “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의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말씀을 완전한 지혜의 유일한 표준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모임에 있다는 것이다.<sup>50)</sup>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

49) 선택을 받은 자들이 믿어서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고 일상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되어지되 말씀의 사역 분만 아니라 성례의 집행과 기도 에 의해서도 믿음의 은혜는 성장되고 강화되어진다.

50) Inst., IV.9.2.

가르치게 하셨다(말 2:7).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도 항상 이일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이 규정을 사도들에게 부과 하셨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sup>51)</sup> 목자들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마땅히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sup>52)</sup>

회의들에 있어서 취급할 문제는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동시에 성경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표준이 된다. <sup>53)</sup>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성례의 거룩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교회의 의무에는 성화의 생활을 해 나아가도록 회원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일이 있다. 즉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에게 추한 행동이 있을 때에 만 말씀의 순결성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집행해야 한다. 권징은 특히 그리스도와 의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에서는 그 필요성을 보다 더 절감하게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특징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권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

칼빈은 1536년 판 기독교 강요에서 권징의 목적을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sup>54)</sup> 권징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으며, 둘째 목적은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과의 교재로 인하여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셋째 목적은 과문당한 자가 회개하여 회복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권징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교회의 참된 표지로는 삼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권징은 중요하였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성례의 거룩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권징의 신실한 수행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

51) Inst., III.9.4.

52) Inst., IV.9.4.

53) Inst., IV.9.8.

54) Inst., IV.12, 5.

### III. 교회의 발전

#### A.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로마서 11장에서 구약을 해석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씨에게 해당된다고 하였다<sup>55)</sup>.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래에서 항상 그의 영적인 택자들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분명히 가시적 교회와 같이 해석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은 모두가 언약의 백성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 언약의 그 내용과 요구들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계시된 은혜 언약의 내용과 요구들을 그 실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신약의 표징들은 그 보다 관명한 표징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다.

바빙크는 이스라엘의 회심과 이방인의 회심의 관계를 병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모든 이스라엘’(롬 11:25)은 마지막 때 무리로 회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로부터 온 교회도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과정에서 이스라엘로부터의 충만이다. 이스라엘은 민족들로 이방인 곁에 남아있다. 그것은 시대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의 충만을 제공하며 그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자신의 특별한 과업의 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모아지는 것이다.<sup>56)</sup>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논박은 매우 중요하다:<sup>57)</sup>

---

55) Cf. H. Bavinck, op, cit., IV, pp.648-9.

56) H. Bavinck, op, cit., IV, p.651.

5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I, Ch 25:2, "But a little later there followed the chiliasts, who limited the reign of Christ to a thousand years. Now their fiction his too childish either to need or to be worth a



칼빈에 따르면 천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을 천년동안으로 제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오류에 구실을 준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음이 분명하나 그 계시록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의 조작은 너무 유치해서 논박할 필요가 없다. 천이란 수는(계20:4)<sup>58)</sup> 교회의 영원한 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각종 고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택자들의 본이나 악한 자들의 벌이 영원하다고 선언한다(마 25:41, 46).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을 전혀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악의 품고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바빙크에 의하면:<sup>59)</sup>

천년설 주창자들이 갖는 기대,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복귀한, 회심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도 하에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미래가 어떠한 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에클레시아(ekklesia), 즉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적 한계를 초월한다. 예수께서 교훈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종교적-도덕적 통치이다. 이스라엘이 거절한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지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모든 점에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신약의 구절들,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비록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 일지라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에게서 성취된다는 가르침을 확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약은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

refutation. And the Apocalypse, from which they undoubtedly drew a pretext for their error, does not support them. For the number "one thousand?"(Revelation 20:4) does not apply to the eternal blessedness of the church but only to the various disturbances that awaited the church, while still toiling on earth. On the contrary, all Scripture proclaims that there will be no end to the blessedness of the elect or the punishment of the wicked(Matthew 25:41, 46. Now all those matters which elude our gaze and far exceed the capacity of our minds must either be believed as from actual oracles of God or utterly cast away."

58)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59) Herman Bavinck, *The Last Things Hope for This World and the Next* 「개혁주의 종말론」 김성봉 역 (서울: 나눔과 섬김, 1999), 146-5.

의 권세를 획득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지배할 것이라고는 전혀 제안하지 않는다. 그 대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는 그 주인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꺾박과 고난의 십자가를 기대할 수 있다. 신약에서 권면 하는 덕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도록 이끌어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 적대시할 때에 인내심을 갖고 견디라고 한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당하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가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배교와 불법과 박해에 직면한 경우에도 여전히 승리함을 확증해 준다. 계시록 20장은, 천년설 신봉자들이 꿈꾸는 세계에 대한 지배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유사하게 이 결론을 확인해 준다. 또 계시록 20장은 천년설 교리의 이중적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즉 “첫 부활”이란 다만 죽었으나 곧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다스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권력의 정상에까지 인간의 배교와 사악함이 다다랐고, 세상은 심판을 받도록 무르익었을 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역사에 종말을 가져오시려고 갑자기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세의 표적들을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날을 계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모든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곧 임하시는 것처럼 항상 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교회를 동일시한다.<sup>60)</sup>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구약세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은 “참 이스라엘” 또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며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는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몇 가지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유대인”을 뜻할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sup>61)</sup> Hendriksen에 의하면 “교회는 이스라엘 아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비유적 용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62)</sup>

60) 장두만, 「예언서 해석의 원리」 (서울: 요단출판사, 1998), 85.

61) William Hendriksen, *Israel in Prophec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68), 54.

62)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은 창 32:28(“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인데,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느 특정 국가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

둘째, 뵤전 2:9-10<sup>63)</sup> 및 엡 2장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출 19:6<sup>64)</sup>과 사 43:20-21<sup>65)</sup> 및 호 1:6, 9; 2:1 등에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뵤전 2:9-10에는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인다. 뵤만 아니라 엡 2:12<sup>66)</sup>에 의하면 과거에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고 했다. 외인 손, 나그네 등은 구약시대에 비유대인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었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이 표현들을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오늘날은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다.<sup>67)</sup>

셋째, 갈 6:16<sup>68)</sup>에 의하면 “교회”를 가리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함을 볼 수 있다.<sup>69)</sup>

---

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다. 뵤만 아니라 시 73:1(“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및 125:5(“자기의 곱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찌어다”)에도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와 연관되어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63) 뵤전 2:9-10,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64)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65) 사 43:21-22,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와 하였으며”

66)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67) Clowney, Edmund P. “Israel and the Church : New Israel” in *A Guide to Biblical Prophecy*, eds. C. E. Armeding and W. W. Gasque, 208-9.

68) 갈 6: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찌어다”

69) 재인용, Hendriksen, 55; William E. Cox, *Amillennialism Today*, 46.

넷째, 교회 즉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히브리어의 “카할”(קהל)에서 추론된 단어로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정한 시간에 모아지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sup>70)</sup> 즉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양자는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1)</sup>

다섯 째, 빌 3:3<sup>72)</sup>, 롬 2:28-9<sup>73)</sup>, 갈 3:6-9<sup>74)</sup>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sup>75)</sup> 따라서 혈통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 B. 신구약 교회의 통일성

칼빈은 신구약 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때에 단순히 기독교적인 통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통일이요 구원의 길과 서정에까지의 통일성을 의미한다.<sup>76)</sup> 칼빈의 언약의 통일성 뒤에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과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의 경륜적 통일성이 깔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빈의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이 정통 개혁주의 안에서 계속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현저히 고백되고 있다.

70)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V」 “교회론과 종말론”(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7-8. “

71) Clowney, *op. cit.*, 210-1.

72) 빌 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73) 롬 2:28-9,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74) 갈 3:6-9,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75) Clowney, *op. cit.* 207, 209, 220.

76)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하나출판사,1998), p.56.

구약이 성도와 신약의 성도 사이에는 죄의 용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발전된 것(doctrina de triplici foedere)도 아니다 계시의 점진성이 신구약 사이의 실체의 통일성을 파괴하지 않는다.<sup>77)</sup> 역시 종교개혁자들의 통일적인 고백인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기독교론적인 이해는 보존되어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주제였던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은 언약의 통일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언약의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동일하신 분으로 동일한 교리를 바탕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경배를 요구하셨다. 칼빈은 신구약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재침례파(Anabaptist)<sup>78)</sup>에 대항하여 성경의 통일성을 말하였다. 이미 2세기에 나타난 마르시온(Marcion)은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여 구약을 신약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sup>79)</sup> 이러한 도전들에 대하여 교회들은 계속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신구약의 통일성은 계속해서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구약의 분리는 17세기 코케이우스(Cocceius)에 의한 성경 신학의 시작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sup>80)</sup>

77) Ibid.

78) 이장식, 「기독교신조사2」, (서울:컨콜디아사, 1992), p.41.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 전에 새 계약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그의 신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영원한 계약이 되며 또 살아남게 하셨으며, 이 계약을 자기의 고귀한 피로써 확증시키고 또 보증하셨으며, 또 그가 이 계약을 그들에게 널리 추천하셔서 천사와 사람이 이것을 고치거나 혹은 그것에 가감할 수 없게 하셨다.” 메노나이트 신앙고백(1632).5항

79) Herman Bavinck, 「개혁주의 교의학」, 김영규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96), pp.533-534. “영지주의자들과 마니교도들과 그들에게 밀접한 중세시대에 이단들은 신약을 구약으로부터 분리하였고, 후자를 낮은 신 즉 조물주(demiurg)에게 돌리고 있다. 특별히 마르시온(Marcion)이 그의 「대립명제들」(Antitheses)이란 책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아펠레스(Apelles)와 타티아누스(Tatianus)는 칭의와 은혜,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육체와 영 등 바울적인 대립성으로부터 출발하였고 그들의 공격의 방향은 구약의 신인동형설, 모순성과 부도덕성이었다. 그리고 변하고 후회하며 보복하고 질투하시며 도둑질과 속이는 것을 명하고 …찬된 하나님일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역시 참된 메시야인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기대 하였던 대로의 메시야 사이에는 큰 차이에 관한 편애를 가졌다. 신약성경으로부터 마르시온은 누가와 바울의 것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을 버렸다. 이들도 삭제와 삽입을 통하여 부패시켰다.”

80) Ibid., p.220.

물론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계시의 관명성의 차이를 인정하며, 신약과 구약에서 그 형식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신구약의 통일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이다.<sup>81)</sup>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언약을 베푸신 삼위일체에 하나님의 사역을 본체론적으로 이해하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 할 때에 신구약의 언약의 통일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언약론은 삼위일체적인 입장에서 통일성이었고, 그로 인해 신구약에서의 은혜 언약의 실체의 통일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sup>82)</sup>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다루고 있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그의 주석 중 예레미야 31장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해, 그리고 이사야서 등에서 나타난 주석을 살펴보면 삼위일체적인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해 할 수 있다.

기독교 강요 2권 10장에서 칼빈은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신구약의 통일성의 핵심은 언약의 통일성이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다.<sup>83)</sup> 칼빈은 주장하기를 옛 언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복과 소망이 주어졌고, 그것은 다만 육적인 복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 이미 옛 조상들에게 영적인 복이 제시되었고, 옛 조상들 역시 영적인 소망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한다.<sup>84)</sup> 또한 새 언약에서도 율법이 조건이 아닌 것처럼, 율법은

---

81) Inst., II.11.1. “성경에 차이가 있으며, 그 사실에 주위를 환기하는 것을 나는 선선히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엄연한 통일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인정이다. …이와 같이 하면 신구약의 약속들은 같으며…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내세의 은총을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계시했으므로,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직접 내세를 명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시던 낮은 훈련 방법을 버리신다.”

82)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하나출판사,1998), p. 58. “칼빈은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할 때, 단순히 기독교론적인 통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요 구원의 길과 서정에까지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칼빈의 전체증거를 볼 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통일성의 경론과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의 경론적 통일이 칼빈의 언약의 통일성 뒤에 깔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칼빈의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이 개혁주의 안에서 계속되어졌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현저히 고백되고 있다.”

83) Inst., II.10.2.

옛 언약에서도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의 위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은혜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해는 개혁주의의 독특한 율법의 이해인 율법의 제 3사용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옛 언약의 성도들 역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며, 그 은혜에 참여하였다.<sup>85)</sup>

이러한 언약의 통일성은 강요 3권에서 다루고 있는 구원론과 강요 4권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 칼빈은 구원론과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합하여 하나의 교회<sup>86)</sup>와 하나의 성례<sup>87)</sup>를 말하고 있다.

은혜 언약의 통일성을 논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내용의 동일성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였다.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다.<sup>88)</sup> 예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생명과 구원의 축복의 말씀들이 이 말씀에 포함된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옛 언약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 본질이 동일하며 그로 인해 그 사역과 효력이 동일하다.<sup>89)</sup>

옛 언약 안에서도 역시 새 언약과 동일한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에 의해, 그리고 동일한 성령사역에 의해 율법은 성도의 마음에 내재화되었다. 새 언약에서 주어진 혜택은 이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며,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은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유효했다. 따라서 칼

---

84) 존 칼빈, 「성경주석 중 창세기」, 칼빈은 창 27장29절을 주석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빌었던 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었음을 증거 한다.

85) Inst., II.10.2.

86) Inst., IV.1.2.

87) Inst., IV.14.20.

88) Inst., II.10.8.

89) Inst., II.10.2.

빈은 구약에서 처음부터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재화되었다고 한다.<sup>90)</sup>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칼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이나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옛 언약에서 나타났던 것이 새 언약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은혜언약의 동일성은 언약의 내용만의 동일성은 아니었다. 그 은혜언약에 의한 구원의 방식과 서정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91)</sup> 구약에서도 신약과 동일한 교회가 나타나며, 동일한 성례를 행하였고, 동일한 중생, 회개, 칭의, 성화, 영화가 나타난다. 그 칭의의 가장 분명한 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다.<sup>92)</sup>

이러한 동일성은 믿음에 의해서 칭의를 얻었다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동일하며, 동일한 회개를 경험하였다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전제한 것이다. 구속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한 방법뿐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 이셨으나, 옛 언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이러한 동일한 언약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양자됨의 은총도 동일하였고, 동일한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구원의 서정이 주어지는 것은 동일한 언약으로 인한 것이다.

옛 언약에서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배제된다면 옛 언약의 성도들의 구원을 새 언약의 성도들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언약의 성도들 역시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륜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언약의 통일성에 대

---

90) 존 칼빈, 「성경주석 중 예레미야」 31:34 주석참조

91)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p.296.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된 것은 아니고 우리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같은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같은 믿음이 그 때나 오늘이나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연다.”

92)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4장 11절에서 칭의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다. 구약의 성도인 그들로 말미암아 칭의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 되어진다.



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칼빈 역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했듯이 삼위의 사역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삼위의 동시적 사역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요 최종 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sup>93)</sup>

신구약의 동일한 언약을 논할 때는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역사 하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동일한 구원의 서정을 주장한다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동일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적용시키고, 유효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다. 이러한 말씀의 사역을 유효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시 옛 언약에서도 동일하였다. 성령을 배제하는 복음전파는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게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 동일하였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 하셨다.<sup>94)</sup>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에 의한 구원의 역사는 새 언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옛 언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처음부터 있었으나 이제 그 교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을 신약의 한 시점에서 교회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그 교회에 거하셨으나,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위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은사와 구원의 서정을 베푸셨다. 성령 하나님

---

93) Inst., I.13.2.

94) 존 칼빈, 「성경주석 중 이사야」, 59:21주석.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예언한다. 영이 말씀과 결합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효력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음 전파가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가 앞으로 결코 이 귀한 축복을 박탈당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고 하늘의 가르침으로 유지되리라고 약속한다.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제공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치고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의 사역을 삼위일체의 사역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적용 자로 계신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이 적용은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께서 함께 예정하신 자에게 사역하신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 말씀을 유효하게 하신다. 칼빈은 요 14:25의 해석을 통하여 그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실 것으로 그는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성령은 새로운 계시 건설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sup>95)</sup>

언약의 통일성은 개혁주의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 언약의 통일성은 곧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었고, 성경의 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제였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구 언약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며, 그로 인해 성도들을 구원하셨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언약은 동일한 효력과 내용을 가진다.

### C. 여러 시대의 교회

족장 시대에는 믿는 자들의 가족이 종교적인 회중을 형성하고 있었다. 경건한 가족이 교회를 대표했으며,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정규적인 예배 의식이 없었다. 다만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구분되었으며,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안에서 보전되었으며, 셈의 혈통을 통하여 맥이 이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할례라는 표징을 주셨다.

---

95) 존 칼빈, 「성경주석 중 요한복음」 14:25 주석.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였다. 교회가 취한 특별한 형태는 교회국가라는 형식이었다. 국가 안에 분리된 종교적인 직무자들과 기관들이 있었다. 동시에 국가 전체가 교회를 구성하였으며,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만 제한되었다. 이 때에 주목할 만한 교리상의 발전이 있었으며, 진리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해졌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약시대의 교회와 하나였다. 신구약 교회의 본질적 성질에 관한 한 두 교회는 모두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 교회가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조직을 형성하였고, 국가적인 형태의 교회가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식적인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 대체되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는 구약시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해 왔으며, 세상 끝날 까지 땅위에 존재 할 것이다. 예수님은 미래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마 16:18).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이미 존재하는 기관으로 말씀하기도 하셨다(마 18:17)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증거하고 있다(롬 11:17-21; 엡 2:11-16).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

아브라함 이전의 교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물론 가인까지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살았다는 것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며(히 11:4),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과 아담이 노아의 시대에까지 살아 있었다는 증거를 통해, 그리고 셋으로부터 여호와와 이름이 알려졌음이 기록되어 있음을(창 4:26) 통해 아브라함 이전에 교회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1장에서 구약을 해석 할 때,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

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씨에게 해당된다고 하였다<sup>96)</sup>.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래에서 항상 그의 영적인 택자들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분명히 가시적 교회와 같이 해석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은 모두가 언약의 백성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 언약의 그 내용과 요구들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계시된 은혜 언약의 내용과 요구들을 그 실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신약의 표징들은 그 보다 판명한 표징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다.

바빙크는 이스라엘의 회심과 이방인의 회심의 관계를 병렬적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모든 이스라엘’(롬 11:25)은 마지막 때 무리로 회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로부터 온 교회도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과정에서 이스라엘로부터의 충만이다. 이스라엘은 민족들로 이방인 곁에 남아있다. 그것은 시대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의 충만을 제공하며 그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자신의 특별한 과업의 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모아지는 것이다.<sup>97)</sup>

칼빈에 의하면 택자들을 전체수로 교회를 정의하고 또한 모든 시대를 통해 예외 없이 그 모든 택자들은 같은 구원의 서정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면서 “세상의 창조 이후로 주께서 땅위의 교회를 가지지 않으셨던 때가 없다고 선포된 것과 같이 마지막 시기까지도 그가 그것을 가지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즉 아담 안에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를 모든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모든 시대 가운데 그의 자비를 맞보지 않은 때가 없도록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칼빈은 이런 입장에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있다

96) Cf. H. Bavinck, op, cit., IV, pp.648-9.

97) H. Bavinck, op, cit., IV, p.651.

고 강조하였다.

A. Hyperius는 아담의 타락 전에 하나님은 낙원에 교회를 가졌고 아담의 타락 전에 그는 그의 교회에게 교리와 표지들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sup>98)</sup>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창조 전에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비가시적 교회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창조와 섭리는 그의 교회를 위한 것이요 그 교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형성되기를 원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유형적인 면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단체, 즉 피택자 전체를 뜻한다.<sup>99)</sup> 교회는 천사나 사람, 죽은 사람이나 산사람, 국가와 종족에 관계없이 피택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은”은 칼빈의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선택을 교회의 기초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치심으로 품안에 품으신다(엡 1:13). 적은 수의 사람이 대중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교회를 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는 은밀한 선택”이라고 칼빈은 역설한다.<sup>100)</sup>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교회론 안에서 말함으로서 선택과 교회를 연결짓고 있다. 따라서 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딤후 2:19)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선택은 그리스도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의 머리이시며 그들은 성장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

98)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V」 “교회론과 종말론”,(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32.

99) Inst.,IV.1,2

100) Loc. cit.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엡 1:22이하), 서로 연합되고 밀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9롬 12:5; 고전 10:17; 12:12,17).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생을 위하여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엡 5:30).<sup>101)</sup> 칼빈의 교회론에 따르면 선택교리는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평안과 확신과 자극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sup>102)</sup>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12).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자라며(엡 4:15) 서로 한 몸이 된다. <sup>103)</sup>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해준다. 그리스도는 통치자의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규례를 만드시고 직원들을 구성하시고 그 직원들에게 권위를 주시며, 현재 이 교회 안에 계셔서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시는 봉사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어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도록 하신다.<sup>104)</sup> 칼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형제애로 결속되고 물질면에서 유무상통 하게 된다”라고 하였다.<sup>105)</sup>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을 준비하실 때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성례를 제정하셨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

101) Loc. cit.

102)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tr. by Harold Knight), p.191.

103) Inst., IV.3,2

104) Calvi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Grand Rapids:Eerdmans,1973),p.268

105) Inst.,IV.1,3

4권 1장에서 교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고 목적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교사와 목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선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강화하는데 매우 유익한 보조수단이다.<sup>106)</sup>

복음 전파와 교직이 제정된 것은 신앙을 일깨워 주며, 신앙의 일치를 확립함으로써 교회의 집합적인 성화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성례의 주요한 기능은 신자의 신앙을 유지하며, 그들 각자의 성화를 도와주는데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신자들의 성화를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지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 지상적이며 인간적인 수단은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과 직책들로 구성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상에서 완성시키는데 이 수단들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택하셨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신자는 교회로서의 한 기관(institution)의 구성요소가 되며, 이 교회는 인류를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였다.<sup>107)</sup>

칼빈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한 것은 그가 두 개의 별개의 교회가 있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에 두 가지 면이 있

---

106) Inst.,IV.1,1.

107) Inst.,IV.1,5.

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피택자들의 단체, 즉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sup>108)</sup> 동시에 칼빈은 교회의 유형성을 강조하면서, 무형교회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유형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이 교회와의 계속적인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09)</sup> 교회는 신앙고백과 행위, 말씀과 성례, 그리고 외형적인 조직과 정치에서 유형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교회에는 선택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도 섞여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실제로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다. 많은 쪽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있다.<sup>110)</sup>

---

108) 모든 피택자로 구성된다는 무형교회의 개념은 어거스틴의 사상이었으며, 위클리프는 이 사상을 항상 즐겨 인용하였다.

109) Inst.,IV.1,7.

110) Inst.,IV.1,2,7.



#### IV. 결론

칼빈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며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기관으로서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와 권징이 집행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며 참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이다. 그리고 성례는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의 교회론에 있어서의 핵심은 말씀이다.

교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 받아 함께 모아진 백성이었으며, 신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교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언약에 기초한 택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 택자들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같은 구원의 서정에 따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받는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조직에 따라 통일되고 서로 섬기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다.

교회의 성격에 있어서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교회, 싸우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 그리고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시적교회와 비가시적교회의 성격은 교회의 본질로부터 자연히 추론되는 성격이며, 싸우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로서의 성격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항상 싸우는 교회이며 승리의 교회라는 것이다. 또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의 성격은 오직 성경에 따라 결정되는 유기체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의 속성에는 통일성과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이 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교회의 머리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갖는다. 교회의 통일성은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

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엡 4:13).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은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과 교회의 내적인 원리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하며 완전한 거룩을 지향하는 것으로 속사람의 거룩함이며 동시에 외적인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구약시대에도 교회의 보편성이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보편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시고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신 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강조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무형교회가 참된 보편교회이다.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과 표지에 있어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어 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그대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 그 적용되고 취하게 되는 수단들이 있는데 이것이 은혜의 수단들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은혜의 수단들과 교회의 표지들이 일치되어 왔다.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은 신비주의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구별된 표지의 내용이며, 율법주의와 반 율법주의로부터 구별된 표지의 내용이다.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위대한 방편이다.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의 기능은 말씀의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성례는 말씀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성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례는 말씀의 가시적인 선포이다.

칼빈은 성례론에 있어서 세례와 성찬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세례는

우리가 씻음을 받아 정화되는 것을 증거하며, 성찬은 우리의 구속을 증명한다. 성례는 말씀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 세례는 사죄의 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영적인 행위로 성찬식에 성령께서 역사 하시며, 이 역사를 통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이다.

교회 정치 제도의 근본원리들은 직접 성경에서 인출된 것으로 그 원리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권위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는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권위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칼빈은 교회가 직원들의 봉사를 통하여 존속하기 때문에 주로 직원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보고 있다. 그는 복음 선포의 직책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음은 전파하는 일은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영광스러운 일이다(고후 4:6; 3:9)”라고 하였다.

칼빈은 목사(pastoras), 교사(doctores), 장로(presbyteri), 집사(diacani) 등의 네 종류의 형태의 직원을 말한다. 그리고 칼빈은 직원의 소명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소명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구별하고,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아야 하고 다음에 소명에 응해야 한다고 하였다(히 5:4).

칼빈에 의하면 택자들을 전체수로 교회를 정의하고 또한 모든 시대를 통해 예외 없이 그 모든 택자들은 같은 구원의 서정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면서 “세상의 창조 이후로 주께서 땅위의 교회를 가지지 않으셨던 때가 없다고 선포된 것과 같이 마지막 시기까지도 그가 그것을 가지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즉 아담 안에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를 모든 시대에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은 칼빈의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12).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자라며(엡 4:15) 서로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아브라함 이전의 교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물론 가인까지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살았다는 것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며(히 11:4),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과 아담이 노아의 시대에까지 살아 있었다는 증거를 통해, 그리고 셋으로부터 여호와와 이름이 알려졌음이 기록되어 있음을(창 4:26) 통해 아브라함 이전에 교회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래에서 항상 그의 영적인 택자들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분명히 가시적 교회와 같이 해석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은 모두가 언약의 백성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 언약의 그 내용과 요구들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계시된 은혜 언약의 내용과 요구들을 그 실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신약의 표징들은 그 보다 판명한 표징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다.

## V.※. 참고문헌

### 원서

- Bavinck Hermann, Our Reasonable Faith, Grand Rapids: Baker, 1980.
- Berkhof Lewis, Systematic Theology, With a Complete Textual Index,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39.
- Berkouwer G. C.,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7.
- Heppe Heinrich, Reformed Dogmatics, Translated by G. T. Thomson. Grand Rapids: Baker, 1984.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83
- William Hendriksen, Israel in Prophec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68), 54.

### 번역서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하」, 한철하 외 공저, (생명의 말씀사, 1986)  
「칼빈성경주석」, 존칼빈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역, (성서교재사, 1993)  
「존칼빈 에베소서 설교 상·하」, 김동현 역, (솔로몬, 1999)  
「기독교 강요」 초판, 양낙홍,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88)
- Bavinck, Herman.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CLC, 1999)  
「개혁주의 종말론」 김성봉 역 (서울: 나눔과 섬김, 1999)
- Berkhof, Louis. 「조직신학 상·하」, 이상원의 공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Hodge, A.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역, (크리스찬 다이

제스트, 1996)

Holtrop, Philip. 「기독교강요연구핸드북」, 박희석 · 이길상공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Miter Henly, 「칼빈주의」, 박윤선 · 김진홍 역, (한국개혁주의 신행협의회, 1981)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풍만, 1995)

### 국내서적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기독교 강요강독 I」,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조직신학 편람 IV」,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2002)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2001)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총신대학 출판부, 1992)

김성봉,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교회와 문화」 제4호, (한국성경신학회, 2000)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3.)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엠마오, 1988)

이종성, 「칼빈」, (대한기독교서회, 1982)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세종문화사, 1980)

이장식, 「기독교신조사2」, (서울:컨콜디아사, 1992)

장두만, 「예언서 해석의 원리」 (서울: 요단출판사, 1998)

### 논문

정동권,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 안양대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1999.

김지훈, "칼빈에게 있어서 신구약의 은혜언약의 통일성", 안양대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2000.

백태현, "칼빈의 교회관", 합동신학대학원 학위논문, 2002.

서성훈, "칼빈의 교회관", , 고신대신대원 학위논문, 1991.

장윤석, "칼빈의 교회관 연구", 총신대학신대원 학위논문, 2002.

임승우, "칼빈의 교회론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2000.

김의환, "칼빈주의 교회관" 「신학지남」 1975년 9월호

박윤선, "칼빈주의 교회론" 「신학지남」 1974년 6월호